

‘우리’가 세운 나라—「에덴의 서쪽」

정순진*

1. 들어가며
2. 텍스트의 담론 특성
3. 새로운 유토피아의 특성
4. 나오며

초록

이 글은 박정애의 「에덴의 서쪽」(『문학사상』 1998년 7, 8, 9월호 분제)을 대상으로 1990년대 여성작가들이 현재 여성억압의 기제로 작용하는 가부장제와 자본주의에 대해 어떤 대항담론을 생산해 내고 있는지, 또 그들이 생산한 대항담론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려는 의도에서 씌어졌다.

이 텍스트의 특성은 의도적인 대항담론이라는 것이다. 서술의 동기가 반여성주의적 여성 주체였던 화자가 출산을 계기로 여성주의적 주체로 다시 태어나면서 그 동안 역사의 배경에 머물렀던 여자들의 역사를 쓰기 위해서이다. 이런 목적을 위해 텍스트는 몇 가지 서술전략을 사용한다. 전략의 하나는 ‘두 입술이 하는 이야기’이다. 이것은 어머니와 딸이 하나가 되어 하는 이야기로, 이 텍스트의 어머니와 딸만이 아니라 상이한 주체성을 지닌 모든 여성 개인은 윗(혹은 아랫) 입술이고, 여성과 여성의 연대는 입술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여기에서 돌이면서 하나라는 특징은 여성 섹슈얼리티의 특징이면서 ‘우리’가 지향해 나아가야 할 사회의 특징이기도 하다. 다른 한 전략은 가부장제를 공고하게 유지하는데 기여해 온 기독교 신화를 패러디하는 것이다.

새로운 유토피아의 특성은 첫째 모성 원리의 존중이다. 이때 모성은 남성 중심의 혼인제도에서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제도에서 벗어나 생명 자체의 귀중함을 깨닫고 실천하는 생명 존중의 원리이다. 둘째는 여성 섹슈얼리티의 추구이다. 이 텍스트

* 대전대 교수

에서는 여성의 성적 쾌락, 여성간의 연대, 레즈비아니즘이 담론화되었다. 셋째, 여성의 경제적 주체성이다. 그러나 이 텍스트에서 이 부분은 취약하다.

새로운 유토피아의 특성인 이 세 가지는 이 텍스트만이 아니라 90년대 생산된 여성 작가들의 대항담론의 특성이다. 여성의 주체성과 관련시켜 모성과 섹슈얼리티에 대한 담론은 무성하지만 모성과 섹슈얼리티의 주체성을 위해서도 더욱 치열하게 논의되어야 할 경제적 주체성과 관련된 문학적 담론은 찾아보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유토피아를 꿈꾸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경제적 주체성에 대한 치열한 인식과 그 인식을 바탕으로 둔 구체적인 생생한 문학적 담론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1. 들어가며

여성들의 목소리를 찾아내려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언어에 나타난 성차별적 양상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언어에 나타난 여성 역할의 양상은 조선시대에 극심해 한문은 남성들의 문자로 여겨졌으며 한문으로 기록된 글만 진서(眞書)로 여겼고, 언문(諺文)은 암글로 불리며 저속한 것, 가짜 글로 여겼다. 또 여성을 독자로 상정한 한글문학에서도 여성은 교화의 대상이라는 생각에서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에 적합한 내용만이 언어화되어 왔다. 이렇게 문자 자체를 남성들이 통어하는 사회, 혹은 여성에게는 문자를 습득할 기회가 거의 주어지지 않는 사회에서 여성들의 말하거나 글쓰기는 필연적으로 어눌하게 되거나 침묵할 수밖에 없게 된다. 현대에 와서도 여성들의 말은 모두 수다와 잔소리, 혹은 바가지 굵는 소리로 규정되기 일췌인데 이런 사회에서 여성이 유능한 언어 사용자가 될 수 없는 것은 필연적인 일이다. 이런 간단한 사실만으로도 여성들이 실제로는 존재했으나 기호상으로 부재로 여겨졌으며, 침묵을 강요당했음을 알 수 있다.

침묵을 강요하는 사회에서도 자기 목소리를 낸 선구자적인 여성들이 간헐적으로 존재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전통사회의 대 여성의

식에 전환을 가져온 것은 천주교의 유입이었으며, 서학에 자극 받아 생겨난 동학·증산교에서도 남녀평등사상이 주창되었고, 개화와 지식인 남성들도 여기에 가담했다. 자기 이름의 글을 쓰고 활자화시키는 여성 문인이 등장한 것은 1910년대였다. 나혜석, 김명순, 김원주로 시작한 일제강점기 여성문인들은 결혼의 거부, 이혼, 모성에 대한 회의, 노동 등의 문제를 형상화했다. 그러나 여성문인들은 상대어도 없는 '여류'로 불리며 희소성의 가치만 인정되어, 작품 자체가 제대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오랜 세월을 기다려야 했다.

선구자적 지식인 여성만이 아니라 평범한 여성들이 여성주의적 시각을 갖는 데는 좀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1980년대 여성 대중이 여성운동의 핵심세력으로 자리잡으면서 사회 각 부문에서 다양하게 전개된 사회운동들과 연계되면서 여성억압의 현장과 양상을 폭로하고 분노하는 작품을 써내게 되었으며 20세기를 마감하는 이제 여성들은 성·사랑·결혼에 얽혀 있는 억압적이고 허위적인 이데올로기와 민족억압·계급억압·성억압이 중첩되어 있는 여성의 일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다.

이 글은 이런 흐름의 가장 끝 부분에서 1990년대 여성작가들이 현재 여성억압의 기제로 작용하는 가부장제와 자본주의에 대해 어떤 대항담론을 생산해 내고 있는가를 살펴보려는 의도에서 씌어진다. 여성이 말한다 고 다 여성의 목소리라고 말할 수는 없다. 여성주체와 여성주의적 주체에는 차이가 있다. 여성주체는 호명된 주체를 의미하지만 여성주의적 주체는 여성주체에서 출발하면서도 그것으로부터 거리를 둘 수 있는 의식화된 주체를 의미한다. 여성주체의 경험이 바로 여성주의적 주체를 가능하게 하지만 여성주체는 반여성주의적일 수 있다. 또한 이 여성주의적 주체에는 생물학적 성이 계산되지 않을 가능성을 담지한다.¹⁾ 따라서 여성주의적 주체는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어떤 성이 주체가 되느냐의 문제

1) 고갑희, 「여성주의적 주체 생산을 위한 이론 1」, 『여/성 이론』(여성문화이론연구소, 1999), pp.24~26.

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타자의 억압 위에 건설된 이제까지의 인간의 역사와 사회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며, 배타적이고 독점적이고 이기적이고 황폐한 이제까지의 주체의 삶의 방식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다. 바흐찐에 의하면 <나>와 <너>는 혼자만으로는 아무 의미도 가질 수 없다. 자아와 타자가 함께 할 때만 <우리>라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²⁾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와 관련한 여성주의적 주체의 시각이 담긴 텍스트가 많이 있지만 본고에서는 박정애의 「에덴의 서쪽」(『문학사상』 1998년 7, 8, 9월 호 분재)을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이 텍스트에서 1990년대 여성작가들이 생산한 대항담론의 성과와 한계의 대강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2. 텍스트의 담론 특성

1) 의도적인 대항담론

텍스트는 <프롤로그 : 두 입술이 함께 하는 어떤 이야기>로 시작한다. 프롤로그에서는 여성들의 체험을 서술하게 된 화자의 서술의도가 밝혀져 있다.

1) 나는 나의 어머니 구분조, 어머니의 혈연은 아니지만 정신적 자매였던 예설영, 내 첫사랑 윤열 오빠와 새살림을 시작한 이혜주, 이 모든 여자들의 역사를 나의 언어로 재구성하는 작업, 그 벅찬 도정의 첫발을 막 내딛으려 하고 있다. 그녀들의 성(姓)은 전부 다르다. 핏줄로 이어지는 외할머니, 어머니, 나 또한 성은 강, 구, 하로 다 각각이다. 우리는 아버지의 성을 이어받고 있고, 아버지의 족보만을 지녀왔기 때문에 외할머니, 어머니, 나의 역사는 역사로

2) 정화열, 『몸의 정치』(민음사, 1999), pp.54~55.

대접받지 못하였다.³⁾

2) 딸들을 낳고 나서야 나는 내 속에 언제나 있었던 자궁을, 어머니를 발견함과 동시에 내 몸을 낳아 기른 어머니를 다시 보게 되었다. ‘아버지는 내 몸을 낳으시고(父生我身), 어머니는 내 몸을 기르셨도다(母鞠吾身)’라는 오래된 거짓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비로소 몸으로 깨달았다. 당신 몸 속의 방에서 나를 키워 뼈 마디마디가 벌어지는 고통 속에서 나를 세상에 내보낸 다음 지상의 방에 나를 눕히고 내 입술의 선홍빛 점막 속으로 당신 유방의 한가운데에 돌출된 검붉은 내막을 밀어 넣은 어머니의 체험을, 나는 내 딸들을 낳는 과정에서 곱다시 공유할 수 있었다. 내 몸에 새겨져 있던 어머니의 역사를 나는 발견한 것이었다.⁴⁾

1)은 서술의 동기가 여자들의 역사를 쓰기 위해서임을 직접적으로 밝히는 부분으로 그 동안 역사의 배경에 머물렀던 여자들의 역사를 쓰려는 이유는 지금 ‘세계는 멸망을 향해 치닫는’ 위기의 상태인데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생명을 낳아 기르는 힘이 역사를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2)는 자신도 여성이지만 여성에 대한 의식을 갖지 못하고 있다가 여성의 역사를 발견하게 된 계기를 밝힌 것이다. 즉 배울 만큼 배운 화자는 남자의 시선과 가치관으로 여자를 바라보았고 자신을 남자로 생각해 자신과 어머니는 질적으로 다른 인간이라고 생각했다. 이런 경우가 반여성주의적 여성 주체이다. 텍스트에서 화자가 여성주의적 주체로 다시 태어나는 계기는 출산 체험이다. 화자는 서술동기를 위해 몇 가지 서술전략을 사용한다.

3) 박정애, 「에텐의 서쪽」, 『문학사상』(1998.7), p.160. 본고에서 대상으로 삼은 텍스트는 하나인데 『문학사상』 1998년 7, 8, 9월호에 분제되었기에 앞으로 인용 텍스트의 부분을 밝힐 때는 몇 월 호인지와 면수를 7-160처럼 표기하고자 한다.

4) 박정애, p.7-162.

2) 두 입술이 하는 이야기

프롤로그에 붙어 있는 제목, '두 입술이 하는 이야기'는 둘이면서 하나인 '우리'의 상징이다. 때문에 이 이야기는 어머니와 딸이 하나가 되어 하는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각각의 체험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입술은 이 텍스트의 어머니와 딸만이 아니라 상이한 주체성을 지닌 모든 여성 개인은 윗(혹은 아랫) 입술이고, 여성과 여성의 연대는 입술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리가레이는 여성의 두 음순을 두 입술로 상징화하고 그것이 여성의 주체적 글쓰기의 도구가 된다고 상징화시키고 있는데⁵⁾ 이 텍스트에서는 어머니의 삶을 이야기하는 화자와 딸인 하운지의 삶을 이야기하는 화자가 모두 1인칭 서술의 형식을 갖는 것으로 형식화된다. 본디 1인칭 서술은 화자의 서술행위의 동기가 자신의 존재론적 요구로부터 생겨난다. 1인칭 서술자이는 경험자이가 중요한 사건을 통해 후회·개심·변화 등을 겪은 상태와 일치한다. 따라서 서술자이는 그의 경험을 회상하면서 삶에 대한 진지한 언급을 하려는 충동을 갖게 된다.⁶⁾ 앞에서 밝혔듯이 이 텍스트에서 화자는 자신의 출산체험을 통해 여성들 사이에도 물론 차이가 있지만 역사에서 배제되었다는 공통점이 있음을 자각하고 여성의 역사를 쓰려는 욕구를 갖게 되었고,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여성의 경험을 회상, 기록하고자 하는 것이다. 쓰고자 하는 것이 화자 개인의 역사가 아니기에 어머니와 나, 그리고 작은 엄마, 올케의 서로 다른 체험을 기술하되 연대를 위해 경험자이는 복수(둘)인데 서술자이는 단수(하나)인 서술방법을 채택한 것이다. 여기에서 둘이면서 하나라는 특징은 여성 섹슈얼리티의 특징이면서 '우리'가 지향해 나아가야 할 사회의 특징이기도 하다.

5) Luce Irigaray, "When our Lips Speak Together", *This Sex Which Is Not One*(Cornell Univ. Press, 1985), pp.205~218.

6) 나병철, 『소설의 이해』(문예출판사, 1998), p.453.

텍스트에서 주된 네 명의 여성 체험을 서술하는 시점은 각각 다르다. 구분조의 경우 1인칭 주인공 시점이지만 서술의 차원에서는 분리가 일어난다. 즉 지각적·관념적·심리적 수준에서는 구분조의 시점이지만 서술은 모두 화자의 언어이고 1인칭 주인공인 구분조의 언어가 재현되는 부분은 대화와 일기에서만이다. 구분조의 동서인 예설영의 경우는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구분조의 관찰에서 드러나지만 언어적 수준은 화자의 것이고, 예설영의 목소리는 대화에서만 드러난다. 이현주의 경우는 반성자-인물 시점이고, 하운지의 체험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서술자와 체험자야가 모든 국면에서 통일되어 있다.

3) 신화 다시 쓰기

여성의 역사를 기술하기 위한 다른 한 방법은 가부장제를 공고하게 유지하는데 기여해 온 신화를 다시 쓰는 것이다. 이 텍스트는 기독교 신화를 패로디하고 있다. 텍스트의 제목 ‘에덴의 서쪽’과 텍스트의 맨 마지막에 있는 소제목 ‘여섯째 날’이 그것이다.

텍스트에서 직접적으로 패로디한 ‘에덴의 동쪽’은 아버지의 편애를 놓고 갈등하는 두 아들, 아론과 카알을 그리고 있는 엘리야 카잔 감독의 영화 ‘에덴의 동쪽’이지만 ‘에덴의 동쪽’은 더 멀리 구약의 창세기에까지 거슬러가지 않을 수 없으며, ‘여섯째 날’도 창세기와 연결되어 있다.

전통적인 기독교의 여성관이 가부장적이라는 사실은 교회전승, 성서전승, 신학전승에서 명백히 나타난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남성적으로 묘

7) ‘반성자-인물시점’은 지각적·심리적·관념적 수준에서 인물시점이 지속되면서 서술의 차원에서 단순한 언어화 수준에서만 개입하는 것으로 화자의 개입이 최소화된 채 인물의 목소리로 진행되는 것이다. 서술자의 목소리를 줄이고 인물시점을 늘임으로써 독자가 인물에 동일시를 이루게 만드는 방법으로 이를 위해서는 내면경험의 지속적인 제시가 필수적이다. 나병철, 위의 책, pp.377~496.

사되어 왔고, 예배언어에서 여성적인 것은 배제되었고, 교회는 전적으로 가부장적 질서와 체제를 이루었다. 기독교에서 여성의 열등과 종속의 근거로 제시된 성서전승의 하나는 창조기사와 타락기사이다. 창세기 2, 3장에 근거하여 여성은 마지막에 창조되고 먼저 범죄한 열등한 자라는 것이다.⁸⁾

그런데 창세기 1장과 2장의 창조 내용에는 차이가 있다. 즉 1장에서 하나님의 창조는 말씀으로 이루어지며, 창조사업의 마지막인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모습대로 인간의 창조가 이루어지며, 남녀가 동시에 창조된다. 1장의 남녀 사이에서는 종속적인 관계성을 전혀 발견할 수 없으며, 오히려 남녀는 동일하게 창조되었다. 거기에 반해 2장에서 하나님의 창조는 진흙으로 빚어서 만드는 것으로, 맨 처음에 아담을 만드시고, 맨 마지막에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신다.

전통적인 기독교적 여성관이 창세기 2, 3장을 주목하였다면 이 텍스트는 창세기 1, 2장을 다시 쓰는 것으로 결말을 삼고 있다. 텍스트에서 '여섯째 날'은 하일이 하운지를 찾아온 날이다. 하운지와 하일은 선후배 사이이긴 했어도 연인은 아니었는데 우연히 만나 서로에 대한 호감을 확인하고 성을 나누었다. 그 다음날 하일은 군에 입대했고, 그 뒤 임신한 윤지는 엄마 집으로 옮겨와 아이를 낳았다. 친밀감으로 성을 나누긴 했어도 사랑도 결혼도 약속하지 않은 관계였던 하일이 옮겨간 주소를 확인하는 수고 끝에 윤지를 찾아온 날, 그 날을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지어내시고 축복하신 여섯째 날이라고 명명한 것이다.

그는 나를 향해 진초록색 모자를 벗어 흔들기 시작했다. 갈비뼈 가운데가 저릿하게 아파왔다. 얼굴을 알아볼 수 있는 거리는 아니었지만 갈비뼈의 반응으로 나는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사막의 암낙타에게 보필하는 짝이 생긴다면 나쁜 일은 아니라고, 나는 생각했다.⁹⁾

8) 장상, 「기독교 여성관의 재발견」, 『한국여성연구·1』(청하, 1988), pp.81~93.

9) 박정애, p.9-177.

그 동안의 남녀관계, 특히 혼전 임신을 둘러싼 남녀의 경우, 남성은 책임과 의무로 여성은 피해의식으로 관계지어져 잘 되어야 지배 종속의 혼인구조로 들어가기 십상인 이제까지의 현실과 달리 주체성을 가진 남녀가 자율적으로 관계 맺기 시작하는 날, 그 날이 '여섯째 날'인 것이다. 창세기 2장에서처럼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윤지의 갈비뼈 가운데가 저릿하게 아픈 것으로 신호가 오는 새로운 아담의 출현으로 마무리되는 이 텍스트의 공간은, 따라서 에덴의 동쪽일 수가 없다.

창세기 2장에서 하느님은 인간을 창조하고 동쪽에 있는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다. 아담과 하와는 그 동산에서 카인과 아벨을 낳았다. 그들이 자라 하느님에게 예물을 바쳤는데 하느님은 아벨의 것만 반기고 카인의 것은 반기지 않자 화가 난 카인은 아벨을 죽이고 말했다. 하느님에게 쫓겨난 카인이 자리잡은 곳이 에덴의 동쪽이다. 에덴 동산 자체가 아버지 하느님의 질서와 계획 아래 마련된 곳이며, 에덴의 동쪽은 하느님의 사랑을 질투하다 죄지은 카인이 쫓겨나 산 곳이지만 카인은 죄를 통해 하느님의 보호를 받는 존재가 된다. 이 때문에 '에덴의 동쪽'은 아버지의 법, 남성 중심의 질서로 이루어진 모든 사회를 상징한다.

나의 임신을 축복이 아니게끔 만드는 칼날은, '에덴의 동쪽'을 통치하는 율법이었다. 그 율법은 독립적인 페미니스트라고 자부했던 나의 머리를 이미, 아니 내 육체까지도 오래 전부터 통치하고 있었다. 율법에 따르면, 결혼을 통해 이루어진 가족제도하에서 선과 도덕의 상징인 아버지의 호적에 등재되지 못하는 아이란 결코 축복이 될 수 없었다. 미혼모는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가장 불쌍한 여인이자, 버림받아 마땅한 가장 몹쓸 여인이었다. 아버지의 율법은 지엄하고도 무서웠다.¹⁰⁾

임신이 남성과 여성이 함께 행위한 결과임에도 아버지의 법은 남성에게

10) 박정애, p.9-170.

계는 관대하고, 그 출생자에게는 불이익을 주었으며, 임신한 여성에게는 지엄하고도 무서운 형벌을 주었다. 그런 아버지의 법을 따르지 않는 곳, 남성 중심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는 나라, 그곳에 '에덴의 서쪽'이라 이름 붙인 것이다. 창세기 2장에서 하느님이 빛은 창조물의 이름은 아담이 짓는다. '에덴의 동쪽'이 아버지 혹은 남성만 창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면 '에덴의 서쪽'에서는 여성이 '생명을 창조한 자의 특권'을 누리 는 곳이다.

그렇다면 여성주의적 주체가 만든 '에덴의 서쪽'은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 알아보자.

3. 새로운 유토피아의 특성

1) 모성의 원리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남편의 대를 이을 아 들을 출산하는 일이었고, 이 이데올로기는 오늘날까지도 영향력을 행사 하고 있다. 이런 사회에서 어머니의 존재는 아들의 존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어머니는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내면화시켜 그 체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거나 지지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다. 때문에 이런 사회 에서 모성은 아들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희생하고 인내하는 헌신적인 사 람으로 신화화시켰고, 이런 '모성의 신화는 여성에게 억압의 도구¹¹⁾'가 되어 버렸다.

이때 찬양되는 모성은 물론 가부장제 규칙에 따른 혼인제도 안에 존 재하는 경우만이였다. 그 제도에서 벗어나 아이를 가진다는 것은 죽음의

11) Juliet Mitchell, "Women : The longest Revolution", *New Left Review*, 40, 1966, 11/12.

형벌을 받을 간음의 증거일 뿐이었다.

그런데 이 텍스트에서 어머니가 되는 여성들은 모두 혼인제도 바깥에 위치한다. 구분조, 예설영, 하윤지는 모두 혼인제도 속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는다. 즉 미혼모인 것이다. 미혼모를 담론의 주체로 삼는다는 것은 남성 중심의 혼인제도에서 벗어나 생명 자체의 귀중함을 제기하고자 하는 의도이며, 이 생명존중의 원리가 바로 새로운 유토피아의 모성 원리이다.

모든 생명은 몇억 겁의 세월 전에 예정된 귀한 것이다. 그것은 내 어머니의 가르침이자 나의 믿음이기도 했다. 윤열도 귀하고 뱃속의 아이도 그럴 수 없이 귀했다. 김을 깨끗이 맨 고랑에 씨를 뿌리면 어김없이 파릇파릇 돌아나는 부추나 열무싹을 바라보는 기쁨과 본질에서 동일한 기쁨이 나의 배 안에서, 달려들어 머리를 꼭 기대고 안기는 윤열에게서 넘쳐났다.¹²⁾

자신의 혈연과 혈연이 아닌 아이를 똑같이 귀하게 여기고, 돌아나는 부추나 열무싹에서도 동일한 기쁨을 느끼는 구분조는 모든 생명을 기르는 대모신의 모습을 보여준다. 자연친화적 생활태도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온갖 고난을 헤쳐가면서도 언제나 넉넉한 품성으로 생명을 기르는 구분조와 같은 어머니는 존경스럽다. 어머니가 되는 체험은 물론 여성에게 즐거움과 행복을 줄 수 있다. 자신을 강력하게 필요로 하는 아이를 키우면서 여성은 누군가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에 삶의 보람을 느끼기도 하고, 사랑을 공유하는 체험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아이를 낳고 기르는 과정에 수반되는 인내와 고통을 숭고하고 위대한 것으로 포장하고 미화하기만 하는 것은 가부장제 사회에서 요구하는 강한 어머니의 복귀에 봉사하게 될 위험이 크다. 국가적 위기가 닥칠 때마다 여성에게 요구하는 전형적인 역할이 주부 역할과 함께 남성을 대신해서 가장의 역할을 도맡은 강인한 모성이었지만 이 강인하고 자식

12) 박정애, p.7-183.

에게 희생적인 모성이 여성의 삶에 궁극적으로 부정적 의미를 가져온 것은 이미 여러 연구에서 지적된 사항이다.¹³⁾

현재 우리 사회에서 어머니가 되는 일은 많은 대가를 치르게 한다. 즉 수입, 복지 혜택, 시간, 그리고 부불노동의 측면에서 여성의 희생이 크다. 아이를 낳고 기르기 위해 수년간 임노동을 못하게 되면 그녀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고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¹⁴⁾ 이 텍스트에서는 예설영이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녀는 남자 집안에서 혼인을 반대하고 남자도 사라져 버리자 아이를 지우려고 한다.

“동세 보래이, 이렇쿠로 건강하게 살아 움직이는 얼라를 우에 죽이노. 지울라 췌지마 침에 헛구역질할 때 지웠어야제.”

“이렇게 될 줄 알았나. 아이 이빠랑 아이랑 다 같이 재미나게 살 줄 알았지. 내가 살락하면 얼라를 죽여야 된다. 그 사람 없이 나 혼자 무슨 수로 아이일 키워. 내 한 목숨 가지고도 못 버터내겠는데 두 목숨으로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어.¹⁵⁾

모성은 모든 여성이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사회·역사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며, 생명이 아무리 귀한 것이라고 해도 그 아이가 저절로 자라나는 것은 아니다.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겨 잘 기르기 위해서는 여성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며, 사회 복지제도를 통한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미혼모라면 ‘아버지의 호적에 등재되지 못하는 아이란 결코 축복일 수 없다’는 가부장적 편견이 불식되어야 한다. 그런 체계와 제도가 마련되지 않고 또 편견도 불식되지 않은 채로 모든 생명은 귀하다는 논리만 뉘뉘한다면 모

13) 신경아, 『희생의 화신에서 욕구를 가진 인간으로』, 『여성과 사회』 제9호(창작과비평사, 1998), p.160.

14) 캐롤 타브리스, 히스테리아 옮김, 『여성과 남성이 다르지도 똑같지도 않은 이유』(또하나의 문화, 1999), p.140.

15) 박정애, p.7-179.

성의 원리는 여성을 생물학적 조건에 묶어 놓는 족쇄가 될 뿐이다.

텍스트 전체의 구심력이 구분조이고, 구분조가 강하고 초월적이기까지 한 대모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모성을 신비화하는 측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텍스트에는 모성 확대의 담론이 함께 있다. 즉 구분조가 예설영의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키우는 것과 이현주와 동규의 정신적 모자관계가 그것이다. 이런 담론은 생물학적으로 내가 낳은 아이에게만 모성이 고착되어 가족이기주의의 원형으로까지 지탄되는 편협한 모성이 극복된 모습을 보여준다.

모성 확대의 모티프는 공지영의 『착한 여자』, 김형경의 「세상의 둥근 지붕」, 김연의 「나도 한때는 자작나무를 탔다」, 차현숙의 「나비, 봄을 만나다」 등 1990년대 발표된 많은 텍스트에 채택되어 있다. 모성 확대는 모성의 원리인 보살핌의 원리를 개별 가족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로 확대하는 것으로 혈연으로만 이루어진 가족이 아니라 대안 가족의 모습을 제시하게 된다.

그러나 모성의 원리를 다룬 모든 텍스트들이 간과하지 않아야 할 사실은 모성이 현재 여성이 당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법의 열쇠가 아니라는 점이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체험이 본래 훌륭한 것이라고는 해도 사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돈, 지위, 권력의 원천이 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 동안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모성을 찬양하고 그것을 통해 여성이 자신에게 긍정적인 느낌을 갖는 것은 좋은 일이다. 하지만 과도한 모성 담론은 아이를 가질 수 없거나 갖지 않기를 선택한 여성들에 대한 압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과 모성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경제적 제도, 사회복지제도, 여성 섹슈얼리티 등 사회적 제반 조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유념해야 할 사실은 모성의 원리가 어머니 체험에서 비롯된 것이기는 하지만 생물학적으로 어머니가 된 여성만 실천할 수 있는 것도, 생물학적으로 여성에게만 의존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다.

2) 여성 섹슈얼리티¹⁶⁾

자본주의와 가부장제의 물질적 기반을 이루는 현재의 가족제도는 가족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성은 배제한다. 이런 의미에서 가족은, 성을 생식적 관계로 정의하고 그 바깥에 있는 예외적인 성을 지배하고 착취하기 위해 억압하는 대표적인 섹슈얼리티 장치로 기능한다.¹⁷⁾

그러면서도 이런 사회는 남성의 성은 본래적으로 충동적이고 자제할 수 없을 만큼 강하고, 여성은 선천적으로 성에 대한 관심이나 욕구가 없다는 성차별적 신화를 형성, 유포시켜 성을 생식을 위한 성과 쾌락을 위한 성으로 이원화시킨다. 그리고 생식을 위해서는 순결한 여성을 대상으로 아내라는 지위를 주고, 쾌락을 위해서는 축첩과 매음제도를 만들었지만 어디에 속한 여성이건 여성이 성적 쾌락에 대해 말하는 것을 금기시켰다.

그러나 이제 여성들은 여성의 섹슈얼리티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여성의 쾌락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구성하고 규제하는 틀로 기능하던 이성애 제도 자체를 비판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그 대안을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섹스와 재생산의 분리(피임과 낙태), 여성의 능동적인 성적 개입(여성의 자위행위와 음핵 오르가즘), 여성간의 관계와 섹스(여성간의 연대와 레즈비아니즘)¹⁸⁾ 논의되기 시작

16) 섹스는 일상 용어에서 성행위를 뜻한다. 성행위에는 삽입, 구강·항문 성교가 포함된다. 섹슈얼리티는 섹스에 관한 생각들, 의미들, 그리고 사회적 관행들을 말한다. 이것은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정리할 수 있다. 1) 일부일체제, 일부다처제, 일처다부제, 독신제도 같은 성적 행위 또는 사회적 관행들. 2) 이성애자, 동성애자, 양성애자로 자신을 규정하게 하는 성적 정향성 또는 성적체성. 3) 성적 욕망. 4) 성적 관계, 또는 성의 정치성. M. Mauthner, "Understand Sexuality", Women's Studies, ed. B. Madoc-Jones and J. Coates(Oxford, 1996), pp.134~135, 조주현, 「섹슈얼리티를 통해 본 한국의 근대성과 여성 주체의 성격」, 『섹슈얼리티 강의』(동녘, 1999), p.44 재인용.

17) 고갑희, 앞의 글, p.41.

18) 주유신, 「처녀들의 저녁식사 : 여성의 성, 자아, 육체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한 것이다.

이 텍스트에서는 여성의 성적 쾌락, 여성 간의 연대, 레즈비아니즘이 담론화되었다.

1) 그가 내 분홍빛 작은 젖꼭지를 빨기 시작하자, 나의 허리는 리듬체조 선수처럼 유연하게 휘어졌다. 지금껏 한 번도 느껴 보지 못한 눈물겨운 환희 속에서 나는 그가 내 몸 속에서 방금 미끄러져 나온 내 아이 같다는 생각을 했다.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귀여우며 얼마나 작은지.¹⁹⁾

2) 나는 오히려 한 이불 속에서 자는 설영의 살이 보드랍고 미덥고 따스하고 향긋했다. 연애하는 여자의 정기를 띤 시원한 눈과 밧그스름한 뺨, 함초름한 입매를 나는 홀린 듯 바라보곤 했다.²⁰⁾

3) 박미자의 손놀림은 부드럽고도 능숙했다. 혜주는 자신의 몸이 이상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박미자가 알아챌까 봐 죽은 듯이 누워 있었다. 박미자의 손가락이 건반을 두드리듯 민감한 부분을 누르고 문지를 때, 혜주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엉덩이를 들고 허리를 꼬았다. 손을 떼주었으면 싶기도 하고, 계속 만져주었으면 싶기도 한 감정이 맹렬하게 다투어 혜주의 몸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갈등상태로 내몰았다.²¹⁾

1)은 윤지가 하일과 나눈 성적 쾌감을 이야기하는 부분이다. 여성이 혼전에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던 사회에서 성적 쾌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성담론의 부상은 1990년대 우리 사회의 특징이기도 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담론은 무기력하고 탈정치화된 존재를 양산시키려는 자본주의와 가부장제의 결합 아래 여성들을 성적 대상으로 다루며 남성들의 성소비를 조장하는 데 기여할 뿐이

시선], 『여/성이론』, p.216.

19) 박정애, p.9-169.

20) 박정애, p.7-178.

21) 박정애, p.9-197.

다. 페미니스트들은 이런 성담론에 대항하기 위해서 성적 위험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데, 보다 적극적인 태도는 여성들이 성적 주체성을 확립하는 것이며, 그것을 위해 여성의 성적 쾌락을 이야기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성적 쾌락에는 성감대를 통해 느끼는 무수한 쾌감과 오르기슴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에게 친밀감과 만족감을 주는 정서적·육체적 경험이 모두 포함된다.

2)는 첫 남편과의 관계에서 '육체에 대한 두려움과 혐오'만 얻었던 구분조가 예설영에게서 느끼는 친밀감의 표현이다. 그녀는 처음으로 '몸끼리의 만남이 주는 기쁨과 안락'을 누리며 몸의 아름다움을 깨닫는다. 사실 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쾌락은 다양하다. 보드랍고 따스하게 느끼는 촉감, 후각을 통해 전해오는 향긋함, 눈으로 즐기는 만족감 등 몸을 통한 친밀감의 확인은 여성의 감성을 만족시키며 인간관계를 더욱 공고하게 결속시킨다.

이것은 여성간의 연대에 해당되는 것으로 페미니스트들이 정치적인 목표로 삼은 자매애이다. 자매애는 여성에게 공통된 억압을 인식함으로써 함께 단결하는 것으로, 해방을 향한 첫걸음이다. 이 텍스트에서 구분조는 예설영을 '내 사랑, 내 친구'라고 술회하는데 실제로 구분조는 예설영과의 자매애를 통해 삶의 전기를 마련한다. 리치²²⁾는 자매애가 여성이 다른 여성과 생식기를 통한 성체함을 갖거나 의식적으로 그것을 원한 적이 있다는 사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풍부한 내면생활을 공유하고, 남성의 횡포에 대항하여 단결하고, 정치적 지원을 실제로 부여하는 것과 같은 여성끼리의 일차적이며 다양한 강한 결속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구분조는 예설영이 죽은 다음에는 쾌락과는 거리가 먼 전형적인 재생산 도구로서의 성역할에 한정되어 버린다.

3)은 박미자와 혜주의 레즈비아니즘을 서술하는 부분으로 박미자는 계획적이었지만 혜주로서는 강간당하는 장면이다. 이 텍스트에서 박미자의

22) 리사 터틀, 『페미니즘 사전』(동문선, 1999), pp.250~251.

성적 쾌락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그려져 있으며, 현주 역시 부정적으로 인식한다. 그것은 이들의 관계가 동의에 의한 친밀성의 추구가 아니고 성별만 바뀌었을 뿐이지 지배 종속 구조로 이루어진 폭력이기 때문이다. 텍스트에서 부정적으로 그려졌다고 해서 레즈비아니즘이 지닌 의미가 퇴색되어서는 안 된다. 레즈비아니즘은 펠러스에 대한 저항이라는 점에서 가부장제의 기반을 제공하는 이성애 논리를 거부하는 것이고, 생산의 거부라는 점에서 자본주의의 강박적인 생산 논리를 부정하는 것이다. 텍스트에서 박미자와의 관계에 대한 현주의 태도는 이성애만 자연스러운 성이라는 논리를 내면화시킨 결과이다. 하지만 자신이 성적 주체로 서지 못해 대상화되거나 성상품이 되는 것은 이성애 관계에서든 동성애 관계에서든 똑같이 비인간적인 일로, 자신이 종속되어 있다는, 혹은 사물화되어 있다는 증거일 뿐이다.

기든스는 재생산 없는 섹슈얼리티와 섹슈얼리티 없는 재생산이 가능해진 현대사회에서 성은 이미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문제라고 주장한다. 이런 상황을 조망하기 위해 도입한 조형적 섹슈얼리티²³⁾는 궁극적으로 자신과 상대방에 대한 끝없는 존중과 일체감을 의미하는 동시에 독립적이다. 따라서 조형적 섹슈얼리티를 바탕으로 하는 합류적 사랑²⁴⁾은 능동적이며 자신만만하다. 우리 사회에서 조형적 섹슈얼리티가 등장하기 어려운 이유는 성별간에 정치적, 경제적 평등이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1990년대 여성 작가들의 텍스트에서 괄목할 만한 것은 자유로운 성을 구가하는 여성 인물의 등장과 자매애의 강조이다. 그러나 정치적, 경제적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구가하는 성의 자유는 ‘여성의 몸과 섹슈얼리티에 더 정교하고 비가시화된 억압과 통제를 낳을 뿐²⁵⁾’임을

23) 앤소니 기든스, 배은경·황정미 옮김, 『현대 사회의 성·사랑·에로티시즘』(새물결, 1996), pp.55~76.

24) 위의 책, pp.115~119.

25) 주유신, 앞의 글, p.217.

명심해야 한다. 자매애는 여성간의 연대로 나타나는데 여성 공동체 혹은 대안가족의 제시로 이어진다. 레즈비아니즘까지 포함하는 텍스트로는 이남희의 『플라스틱 섹스』 연작이 있다. 이남희는 기든스의 개념을 바탕으로 두고 여성과 여성 사이에서 합류적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탐색해 보고 있다.

여성 섹슈얼리티에서 여성도 성적 욕망을 가진 존재이고, 쾌락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남성 없이도 성적 쾌감이 가능하다는 논리는 여성주의적 주체생산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²⁶⁾지만, 반드시 유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실은 섹슈얼리티가 여성을 둘러싼 모든 사회 제도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점이다.

3) 경제적 주체성

모성의 원리가 제대로 발현되기 위해서도, 또 섹슈얼리티를 주체적으로 누릴 수 있기 위해서도 여성의 경제적 주체성은 필요불가결한 일이다. 때문에 ‘우리’가 세우는 나라는 개개인의 경제적 주체성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자본주의적 가부장제에서 여성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은 생산성을 기준으로 하는 경쟁논리 아래 공/사, 생산/재생산의 영역을 성별화하기 때문이다. 즉 노동시장에서 여성이 성차별 받는 것은 여성들이 남당하는 재생산 노동은 사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사랑과 헌신인데 여성 노동자는 사적 영역에서의 재생산 노동 때문에 공적 영역에서 경쟁논리에 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에 의해 생산 영역과 재생산 영역으로 분할되어 있는 사회에서 여성의 노동은 저임금과 불안정을 특징으로 하게 된다.

이 텍스트에서 구분조와 예설영이 시집을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은 경

26) 고갑희, 앞의 글, p.44.

제적 자립에 대한 자신 때문이었다.

이 집 식구들 위해 죽자구나 밥하고 빨래해도 누구 형님한테 땡전 한 푼 주질 않는 건 맞아. 형님, 하지만 내 말 들어 보래이. 이 집 나가서 어디 식당 같은 데 취직하면 밥하고 설거지만 해도 월급을 준데이. 형님같이 손끝 야물고 숨썬 있는 사람은, 월급도 많이 받을 수 있어. 그리고 나는 교사 자격증이 있으니 어테어데 연줄을 대가지구 잘 부탁하면은 선생 자리도 얻을 수 있을꼬고.²⁷⁾

예설영은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집안에서 하는 가사노동은 무보수 봉사이지만 가사노동이 사회화되면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격증이 남녀에게 동등하게 주어진다고 해서 취업까지 동등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은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예설영은 ‘생각만큼 쉽게 취직이 되지 않았’고 나중에 얻은 자리도 ‘병가를 낸 선생의 자리를 때우는 임시 강사’였다. 복구멍에 풀칠하는 정도였어도 구분조는 “자기가 일해서 벌어먹는 행복은 큰 것이었다.”고 일하는 기쁨을 표현한다.

이 텍스트에서 구분조는 혼자 힘으로 경제적 자립을 거뜬히 이루어낸다. 이것이 강인한 체력에 바탕한 부지런함으로 온갖 굵은 일을 마다 않고 밤낮으로 일해서 이루어낸 놀라운 성취임에는 틀림없지만 예외적인 경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여성 문제를 구조적인 측면은 도외시한 채 개인의 차원으로만 해결하려는 태도는 반여성주의적이다.

그런 점에서 이 텍스트에서 여성의 경제적 자립에 대한 접근은 취약하다. 하윤지도 현실적으로 고학력 여성의 취업이 어려운 것과는 상관없이 전공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임신과 출산으로 오랜 공백을 두었다가도 다시 일할 수 있는 행복한 경우에 속한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은 현주의 경우에 드러난다.

27) 박정애, p.7-176.

도망치려고 마음만 먹었으면 얼마든지 도망칠 수 있는 여건이었음에도 그녀가 도망치지 않은 건 구두 가게 점원으로 쥐꼬리만한 월급을 받아 고향으로 얼마를 부치고 자취방 월세로 얼마를 내고 쌀값과 반찬값, 가스값으로 얼마를 쓰고 버스터미로 얼마를 남기면 겨우 속옷 한 벌을 장만할까 말까 한 빠듯한 생활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서였다. 봄 원피스 한 벌을 사려면 겨우내 머리털이 빠지도록 신경을 써서 생활비를 여투어 뒤야 하는 긴장된 경제가 싫어서였다.²⁸⁾

인용문은 성실하게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빠듯하게 생활할 수밖에 없는 여성 경제의 구조적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 여기에서 이런 고민을 하는 경우만 해도 선택받은 소수일 만큼 먹고살기 위해 아무 일이라도 해야 하는 저소득층 여성이 점점 늘어나는 우리의 현실을 감안할 때 여성은 점점 더 열악한 환경에서, 저임금으로, 불안정하게 일하게 될 전망이다.

여성의 경제적 자립에 대한 담론의 취약성은 이 텍스트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여성의 주체성과 관련시켜 모성과 섹슈얼리티에 대한 담론이 무성한 가운데 모성과 섹슈얼리티의 주체성을 위해서도 더욱 치열하게 논의되어야 할 경제적 주체성과 관련된 문학적 담론은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이 1990년대의 특징이기도 하다.

자본주의적 가부장제에서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는 제도 자체의 변화가 필요하다. 먼저 재생산도 노동이라는 인식의 제도화이다. 페미니스트들의 노력으로 재생산도 노동이라는 인식은 생겨났으나 이 노동에 사회적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는 제도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것은 모성의 원리에서도 논의된 것이지만 사회는 아이를 낳고 돌보는 사람의 일에 대해서 구체적인 복지혜택으로 보상해 주어야 한다. 리틀톤은 “여성적인 삶의 양식을 취한다고 해서 처벌당하거나 남성적 삶의 양식을 취한다고 해서 보상받지 않고, 누구든지 개인의 타고난 성향이나

28) 박정애, p.9-153.

선택에 따라서 여성, 남성, 양성적 삶의 형태를 취할 수 있는 체계를 대안으로 제시한다.”²⁹⁾

다른 하나는 생산중심주의로 치닫는 자본주의의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자본주의가 극대화한 성장 물신주의, 과도한 생산주의, 강자 숭배주의의 대안으로 보살핌의 경제원리(여성주의적 경제원리)를 확대하고³⁰⁾ 자본주의가 부추겨 놓은 인간의 무절제한 욕망과 과소비를 절제하는 미덕을 되살리는 공동체 운동도 대안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생태여성주의의 출현은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다.

작가들은 경제적 주체성이 확립되지 않는다면 모성의 원리도, 여성 섹슈얼리티의 추구도 사상누각일 뿐임을 기억하고 여성들의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기반에도 상상력을 작동시켜야 할 것이다.

4. 나오며

위계질서와 경쟁논리로 조직화된 우리의 현실을 ‘에텐의 동쪽’이라고 한다면 순환질서와 보살핌의 원리로 움직이는 사회를 ‘에텐의 서쪽’으로 그려낸 이 텍스트는 여성들의 당당함과 부드러움을 보여주면서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페미니스트 유토피안 소설이다. 본고는 이 텍스트의 담론 특성을 의도적인 대항담론, 두 입술이 하는 이야기, 신화 다시 쓰기로, 새로운 유토피아의 특성은 모성의 원리, 여성 섹슈얼리티, 경제적 주체성으로 살펴보았다.

생명 자체의 귀중함을 깨닫고 실천하는 생명 존중의 원리를 근간으로 하면서 대안가족까지 모색하는 모성의 추구, 자매애를 포함하는 여성 섹슈얼리티의 추구는 사실 이 텍스트만의 특성이라기보다 1990년대 여성

29) C. A. Littleton, “Reconstructing Sexual equality”, *California Law Review*, 75(1987), p.1297, 캐롤 타브리스, p.140 재인용.

30) 김종철, 「보살핌의 경제를 위하여」, 『녹색평론』(1998.7~8), pp.2~25.

작가들이 생산한 대항담론 전체의 성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대상으로 삼은 「에덴의 서쪽」을 포함한 대다수 여성 작가들의 대항담론은 경제적 주체성 부분은 상당히 취약해 구체적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한계를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다. 이것은 인식은 되어 있으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실천력은 부족한 현단계 여성주의 문학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새로운 가치는 추상적으로 성취되지 않는다. 물론 문학은 당위적인 주장을 소리 높여 외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의식과 실천의 괴리에서 갈등하며 길항하는 나날의 삶, 구조적 변혁의 차원을 개인적 삶에서 구현해내는 여성들을 구체적으로 포착하여 형상화할 때 상호 존중하는 상호 존재인 '우리'가 꿈꾸는 세상을 이 땅에 세우는 날을 한 발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박정애, 「에덴의 서쪽」, 『문학사상』, 1998.7~9.
 김열규 외 공역, 『페미니즘과 문학』, 문예출판사, 1988.
 김현자 외, 『한국여성시학』, 깊은샘, 1997.
 나병철, 『소설의 이해』, 문예출판사, 1998.
 박영옥 외, 『한국여성연구 1』, 청하, 1988.
 서강여성문학연구회 편, 『한국문학과 모성성』, 태학사, 1998.
 송명희 외, 『우리 시대의 성담론』, 새미, 1998.
 여성사회연구회, 박영숙 옮김, 『여성사회학』, 한울, 1985.
 장필화, 『여성/몸'성, 또하나의 문화』, 1999.
 정화열, 『몸의 정치』, 민음사, 1999.
 고갑희, 「여성주의적 주체 생산을 위한 이론 1」, 『여성이론』, 여성문화이론연구소, 1999.
 김종철, 「보살핌의 경제를 위하여」, 녹색평론, 1998.7~8.
 신경아, 「희생의 화신에서 욕구를 가진 인간으로」, 『여성과 사회』 제9호, 창작과 비평사, 1998.

- 이덕화, 「공선옥론 : 자매애적 유대를 통한 사랑의 실현」, 『여성문학연구』 창간호, 한국여성문학학회, 1999.
- 장 상, 「기독교 여성관의 재발견」, 『한국여성연구 1』, 창하, 1988.
- 정순진, 「불임의 시학」, 『여성문학연구』 창간호, 한국여성문학학회, 1999.
- 조주현, 「섹슈얼리티를 통해 본 한국의 근대성과 여성 주체의 성격」, 『섹슈얼리티 강의』, 동녘, 1999.
- 주유신, 「처녀들의 저녁식사 : 여성의 성, 자아, 육체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시선」, 『여성이론』, 여성문화이론연구소, 1999.
- 볼스, G. · 클레인, R.D. 편, 정금자 역, 『여성학의 이론』, 을유문화사, 1986.
- 기든스 앤소니, 배은경 · 황정미 옮김, 『현대 사회의 성 · 사랑 · 에로티시즘』, 새물결, 1996.
- 이리가레이 루스, 박정오 역, 『나 · 너 · 우리』, 동문선, 1996.
- 리치 아드리엔느, 김인성 옮김, 『더 이상 어머니는 없다』, 평민사, 1995.
- 타브리스 캐롤, 히스테리아 옮김, 『여성과 남성이 다르지도 똑같지도 않은 이유』, 또하나의 문화, 1999.
- 터틀 리사, 『페미니즘 사전』, 동문선, 1999.
- Mitchell Juliet, "Women : The longest Revolution", *New Left Review*, 40, 1966, 11/12.
- Irigaray Luce, "When our Lips Speak Together", *This Sex Which Is Not One*, Cornell Univ. Press, 1985.

